

단단한 투자를 위한 탄탄한 기본기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주식 공부



7

와이민(송선재) 지음

세상에 이런 주식 공부는 없었다!

현직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솔직하게 꺼내놓은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공부법

단단한 투자를 위한 탄탄한 기본기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주식 공부



와이민(송선재) 지음

세상에 이런 주식 공부는 없었다!

현직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솔직하게 꺼내놓은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공부법

7화. 기업과 주식을 연결하는 법

좋은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오르기 마련

좋은 기업을 찾아 사업보고서를 읽고, 재무 분석까지 해보았다면,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우리는 통상 ‘가치평가’, 영어로는 ‘밸류에이션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가치평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실적은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트와이스TWICE라는 아이돌 그룹의 열성팬이었던 어느 개인 투자자가 그들의 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주식을 사서 대박을 친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썬위 팬, JYP로 대박 난 사연

우선 이분의 투자는 일반화될 수 없을 수 있으니 따라 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 이분의 단 한 번의 뛰어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도 썬위를 좋아하셨습니다. 썬위를 보고 반해 팬이 되었고, 트와이스가 소속된 JYP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감했다더군요. 그래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트와이스가 데뷔한 2015년 말 즈음 JYP엔터테인먼트 주식을 4천 원대 후반에 매수했습니다. 한 1년을 홍보하던 JYP 주가는 트와이스가 ‘Cheer Up’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오르더니 돔 투어 등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폭등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랐냐고요? 3만 원이 넘었고, 2019년 2월 현재도 2만 원 후반에서 움직입니다. 5배 수익이 났네요.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주가 그래프



출처: 네이버금융

아이들을 좋아하는 팬만이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생활 속에서 대박 주식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샀으면 대박 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애플 마니아들은 어떤가요? 애플 주식도 살펴봅시다. 엄청나게 상승했지요.

스타벅스의 주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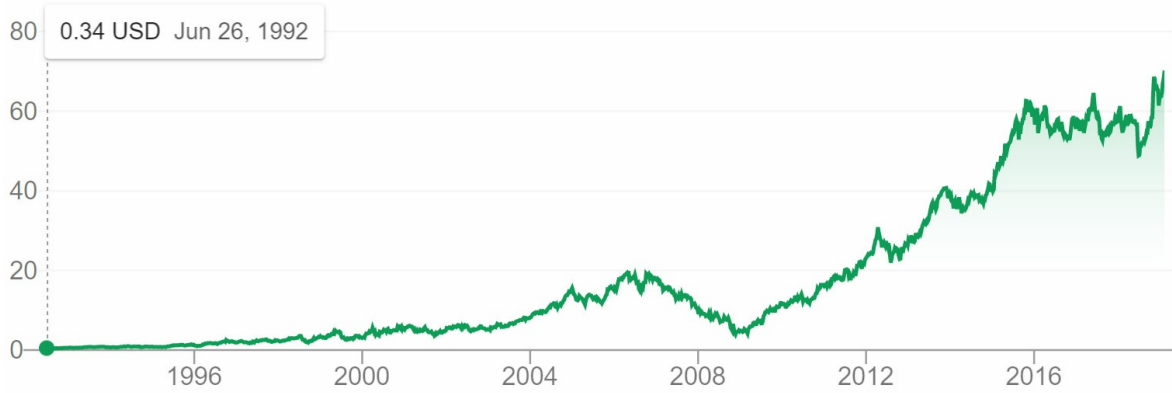
Starbucks Corporation
NASDAQ: SBUX

+ Follow

69.99 USD +0.24 (0.34%) ↑

Closed: Feb 11, 6:02 PM EST · Disclaimer
Pre-market 69.99 0.00 (0.00%)

1 day 5 days 1 month 6 months YTD 1 year 5 years **Max**



출처: google

애플의 주가 그래프



미국의 유명 투자 저술가인 토마스 펠프스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책을 예상할 수 있다면 투자 기회입니다. 도둑이 없다면, 누가 자물쇠를 살까요?”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소재,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빠르고, 저렴하며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라면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삼촌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스타벅스는 커피와 장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했고, 애플은 다양한 IT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저처럼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사후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이 기회를 봤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를 눈여겨 보고, 그 변화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호기심 있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돈은 엉뚱한 곳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두 가지 동력

앞 예시에 들었던 분은 자신의 취미생활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또 다른 쓰위 같은 사례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박의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팬심을 접고 현실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다면, 이를 주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회와 주가가 연결되려면, 먼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근원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익 증가와 가치평가의 상승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평가방법으로 PER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독자 분들을 위해 잠시 복습하자면,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의 약자로 주가이익배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였지요. 예를 들어, PER 10배라는 것은 회사의 주가가 한 해 이익의 10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것이지요. A라는 회사의 이익이 100억 원이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면, 이 회사의 PER은 1,000억/100억으로 10배입니다.

이를 약간 틀어서 보면, 회사의 주가(=시가총액)는 한 해 이익에 적정한 PER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PER이 상승하면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A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50%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하든지(이때 PER은 불변), 아니면 이익이 100억 원 그대로이지만 갑자기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가 후해지면서 PER이 10배에서 15배로 상승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익이 정체된 기업의 PER이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설명을 위해 예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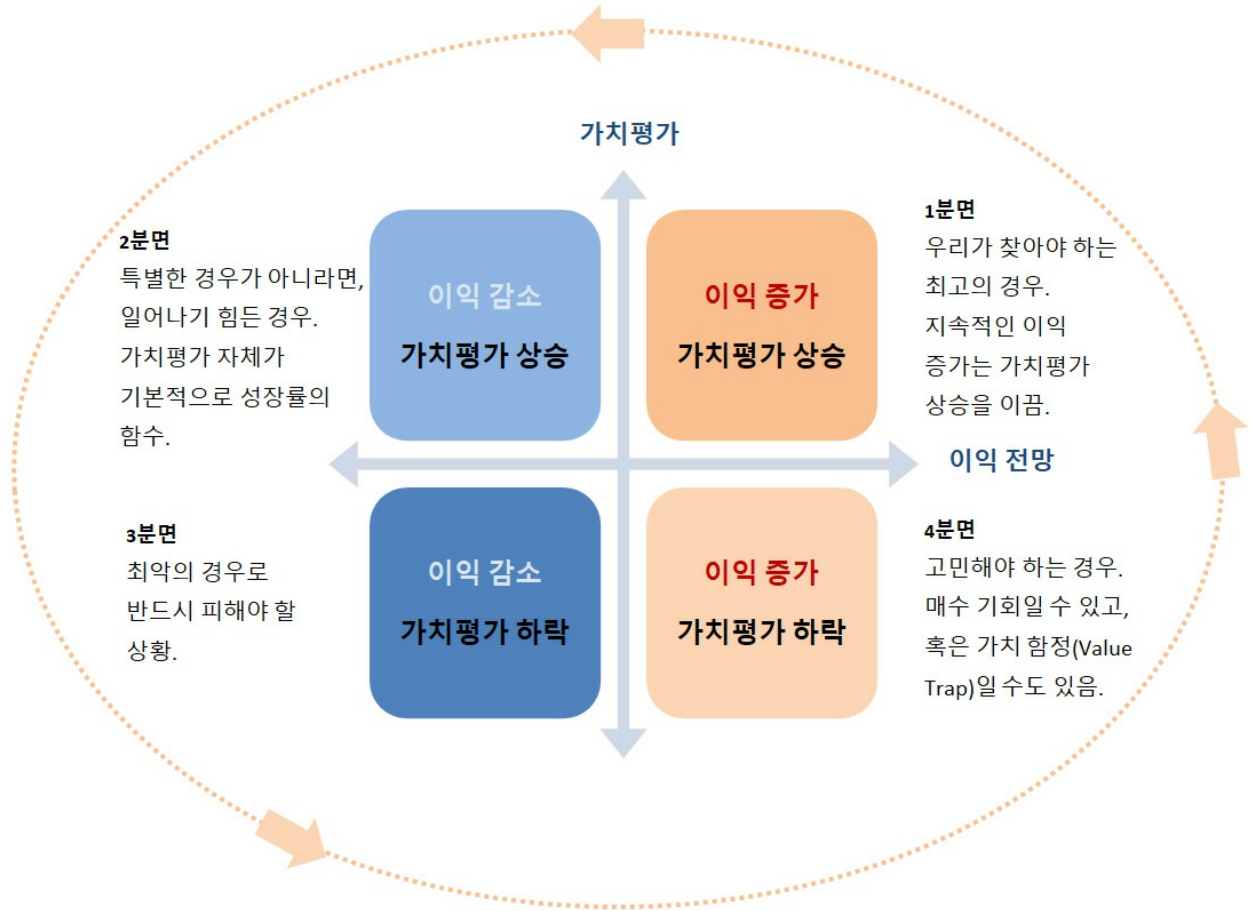
어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이익 증가와 PER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PER이라는 것은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PER을 높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 상승의 2가지 방법

	적정 주가	=	예상 EPS	*	목표 PER
현재	1,000	=	100	*	10
1) 이익 증가	1,500	=	150	*	10
2) 가치평가 상승	1,500	=	100	*	15
1)과 2) 동시 상승	2,250	=	150	*	15

출처: 필자 작성

이익 증가와 가치평가 상승의 두 가지 주가 촉매를 조합해보면,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4분면으로 나타내보겠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1사분면은 이익이 증가하고 가치평가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최고의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이익 증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가치평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2사분면은 이익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가치평가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치평가 방법 중에서 PER은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PER이 상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익 이외의 요인이 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익이 감소하지만 곧 반전되어 증가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면밀히 따져서 매수와 매도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사분면은 이익이 감소하고, 가치평가도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1사분면의 정반대 상

황인데, 최악의 경우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4사분면은 이익은 증가하는데, 가치평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익 증가에 변함이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치평가만 하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치평가가 이미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이익 증가율이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현재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투자자가 향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도하는 경우라면 매수를 보류해야 합니다.

가치 흐름과 가격 흐름을 이해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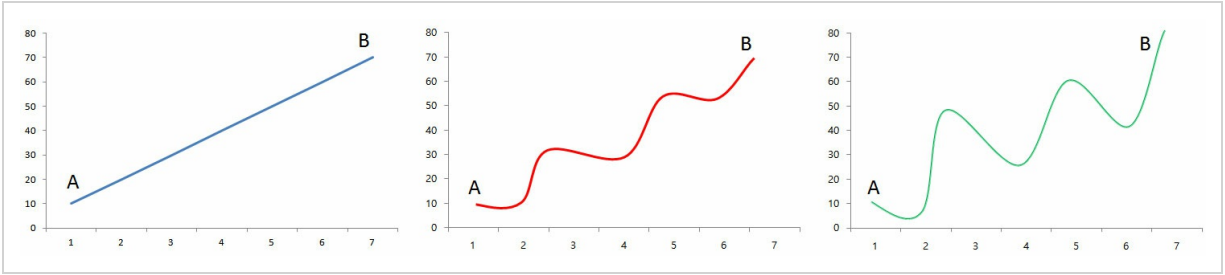
주가 상승의 두 가지 동력, 즉 이익 증가와 가치평가의 상승에 관해 말씀드렸고, 주식의 가치 흐름과 가격 흐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기간으로 나누면 장기와 중기로 구분되고, 중간에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접목됩니다. 자산의 가격은 경제의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요 증가 등에 의해 길게 보면 상승하는 것이 장기 흐름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당연히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경기의 변동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당연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움직입니다.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전 저점과 현 저점, 전 고점과 현 고점 등의 가격 흐름이 중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 흐름은 그보다 짧은 흐름이지만, 이는 단순 시장 내 수요-공급의 변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성격이 큼니다. 중기 흐름과 단기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유동성·투자자 심리·정부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자산 가격의 장기 흐름이고, 빨간색 선은 중기 가격 변동을 포함한 가격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녹색 선은 변동성이 확대된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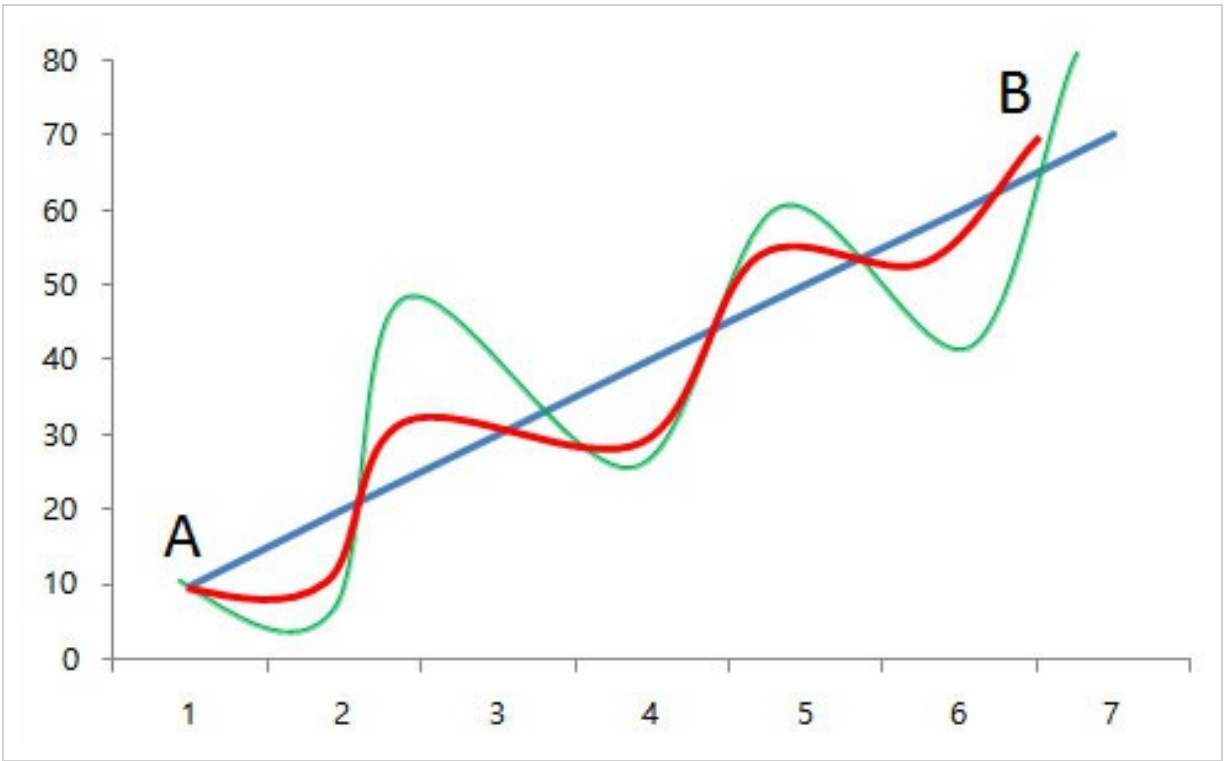
장기·중기·단기 가격 흐름



출처: 필자 작성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합쳐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즉, 가격은 A 시작점에서 B 종료점까지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투자에 있어 내재된 위험(=가격 하락)을 제거할 수 있고, 매수/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매 시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시점이라 하면, 대략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중기·단기 가격 흐름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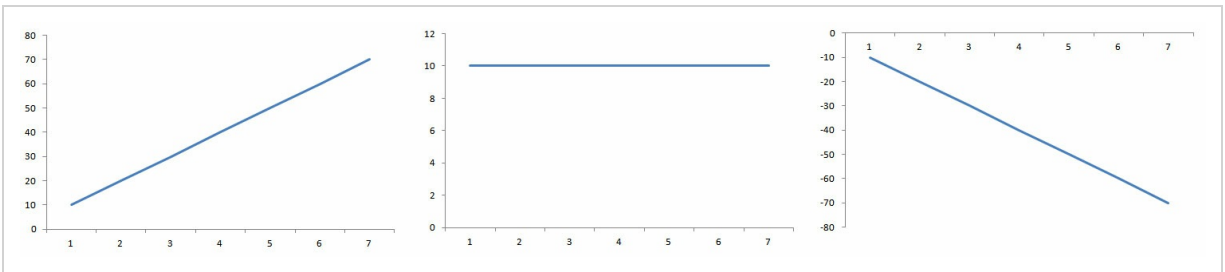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먼저, 장기 그래프와 관련해서 자산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전제가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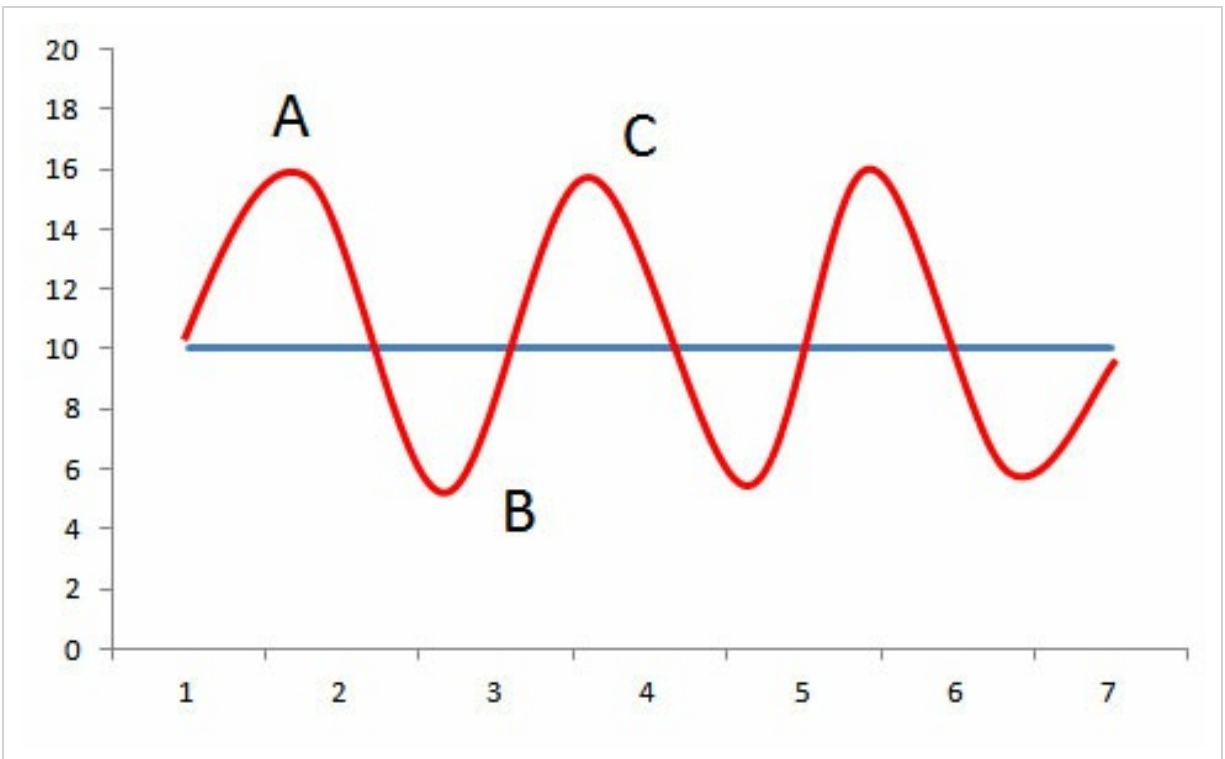
안 됩니다. 아래 장기 그래프선들 중에 오로지 첫 번째 그래프라고 전망할 때만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와 같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빠진다고 본다면, 이는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가격 변동에 대한 투기가 됩니다. 부정적 의미의 투기가 아니라 가격 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어려운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투기는 시간이 적입니다. 한번 변곡점을 잘못 예측하면, 가격 하락의 위험과 기회 비용의 위험이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산의 장기 트렌드



출처: 필자 작성

장기 흐름이 정체된 시기의 매수/매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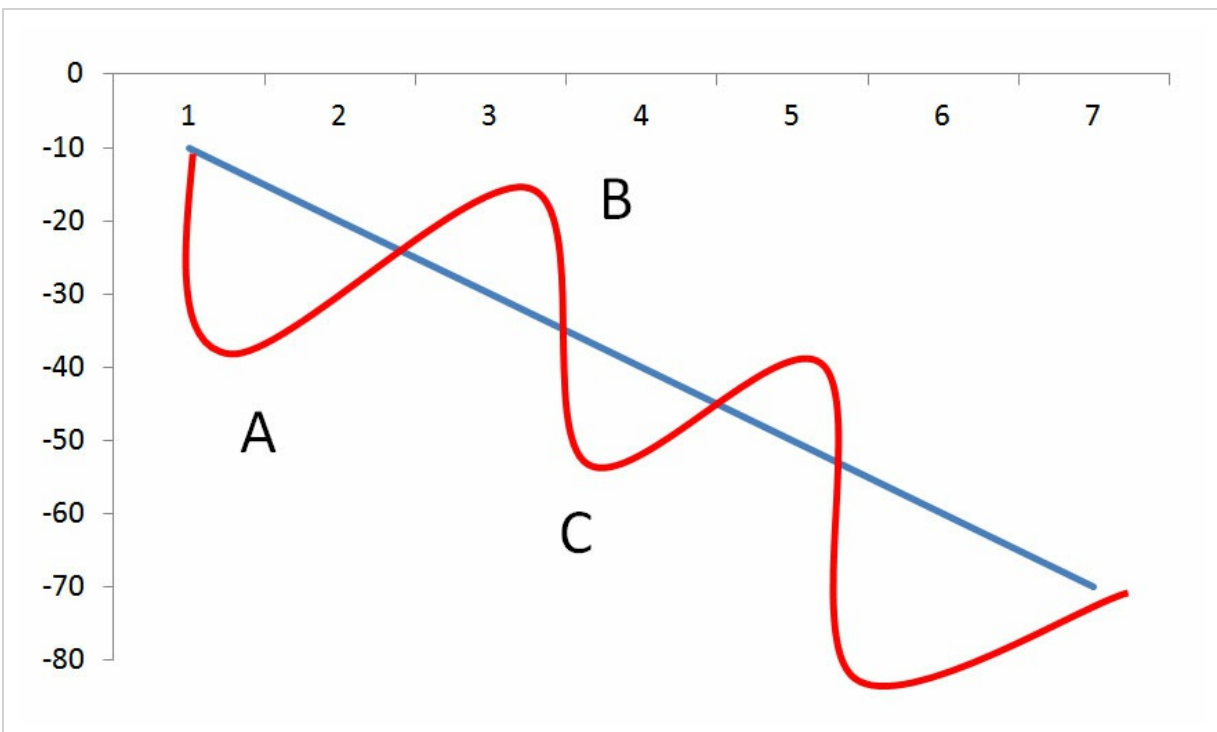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예를 들면, 장기 흐름이 정체된 그래프에서는 향후 고점이 다시 오더라도 산 가격까지의 기회비용이 큼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안타깝게도 A지점에서 매수했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흐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B지점을 지나 C지점까지 반등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산 가격에 불과합니다.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시간 동안 제 투자금은 0%의 수익을 냈고, 그 기회비용이 상당히 큼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B지점에 사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지점에서 사서 C지점에 파는 고수는 흔치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A지점과 B지점 사이에서 매수했고, C지점에서 매도하면 수익률은 작죠. 즉, 장기 흐름에서 가격 변동성을 먹는 전략은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 흐름이 하락하는 경우라면 재앙입니다. 아래 A 지점에서 사서 B지점에서 팔아도 수익률이 별로이고, 만약 A지점에서 사서 C지점에서 팔면 손해이고, B지점에서 사서 C지점에서 팔면 재앙입니다. 즉, 장기 흐름이 하락하는 흐름이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A-B 구간의 수익률 대비 B-C 구간의 위험이 너무 커서 수익-위험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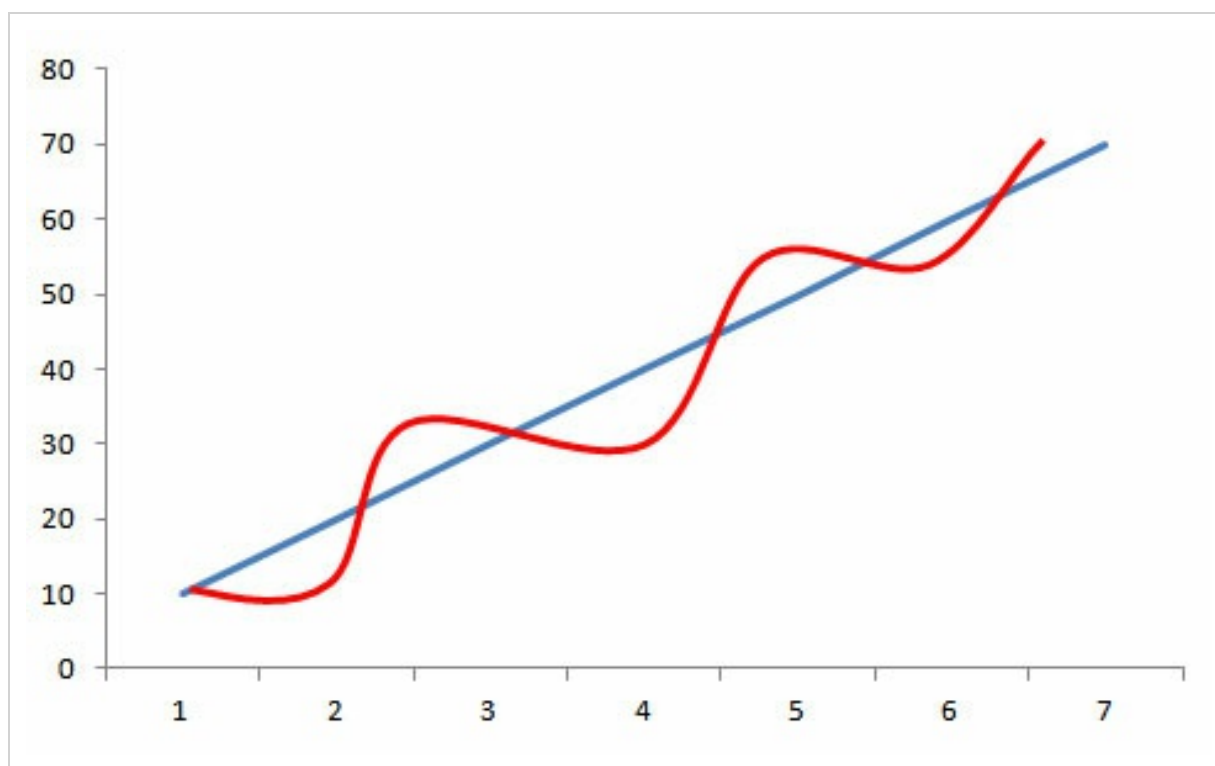
장기 흐름이 하락하는 시기의 매수/매도 대응



결론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기 흐름이 우상향할 때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 흐름이 정체일 때는 매수/매도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이는 고수의 영역이고, 장기 흐름이 우하향일 때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괜히 시장과 맞서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장기 흐름이 우상향이라고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고민하셔야 할 건 투자 기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하겠지만 선형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예를 들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수요-공급의 변화 등)에 의해 진동을 보이면서 상승합니다.

장기·중기 가격 흐름의 통합



자산은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가 변동하게 되면, 즉 경기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는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주식·부동산 등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

를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면 그것의 정반대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은 반대로 통화가치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현금 이외에 통화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도 그 수단의 한 가지이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자산의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수요-공급의 변동은 투자자 심리와 연관이 큼니다. 주식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주식시장의 상장 주식들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그에 걸맞은 공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요 증가 시기에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그에 맞춰 상승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지거나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공급 초과로 가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경제학의 당연한 수요-공급의 원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비탄력성으로 좀 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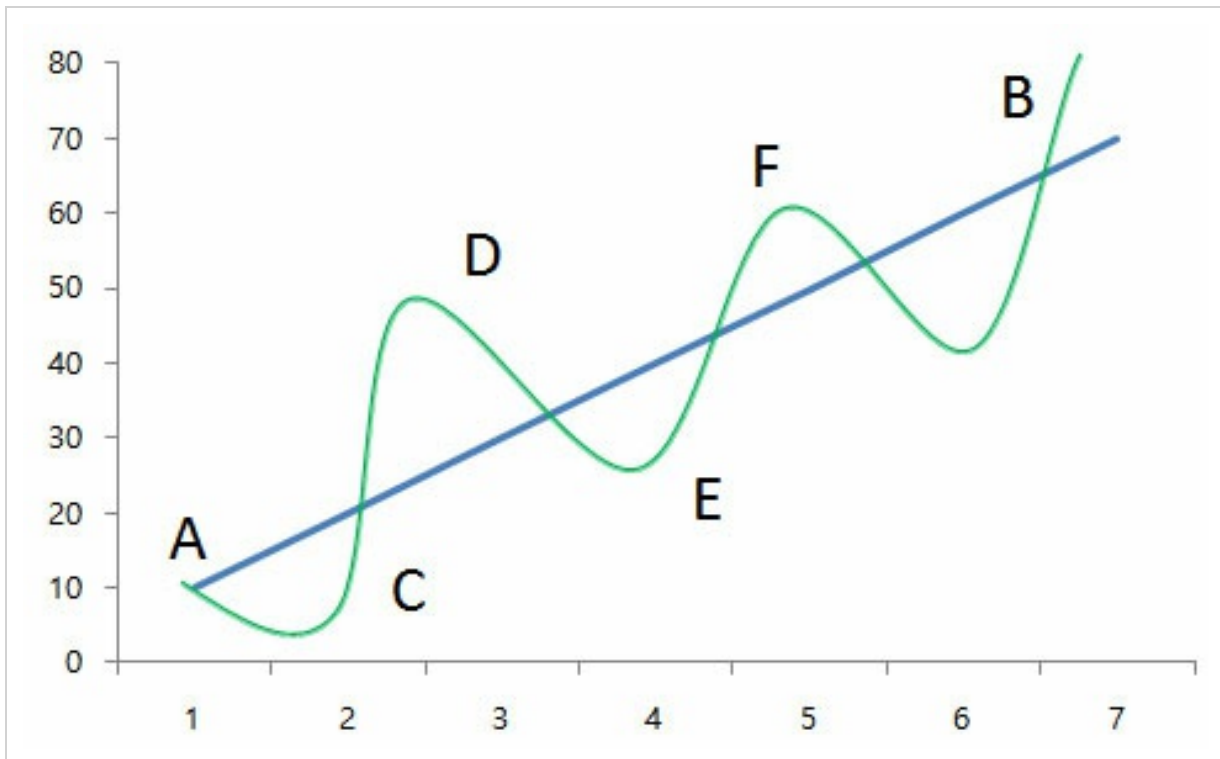
정보의 개입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로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축소시키고, 이는 월급 축소 등으로 봉급생활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도 생깁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기 부양이라는 개입을 하게 됩니다(대표적인 것이 ‘금리 인하’입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부의 차이를 만들면서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옵니다. 또한,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달콤한 부의 효과로 인해 생산 활동에 쓰여야 하는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만 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막기 위해 정부는 또 다시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시장 개입을 합니다(대표적인 수단이 ‘금리 인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산 가격은 변동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중기적 가격 변동은 자연스러운 시장 내 현상입니다.

중기적 가격 변동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가치 변동 혹은 가격 변동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투자자 개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산 시장은 스스로 비합리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단기 투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기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모여서 집단 동력을 갖추게 되면, 그 동력 자체가 비합리성을 띠게 되면서 가격 진행 방향으로 모멘텀을 형성하고, 이것이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파란 색의 장기 추세 위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녹색 선이 있습니다. 장기 가격은 A에서 B로 올라가지만, A에서 B로 바로 가지 않고, C, D, E, F를 거치면서 변동성을 띠고 갑니다.

장기·단기 가격 흐름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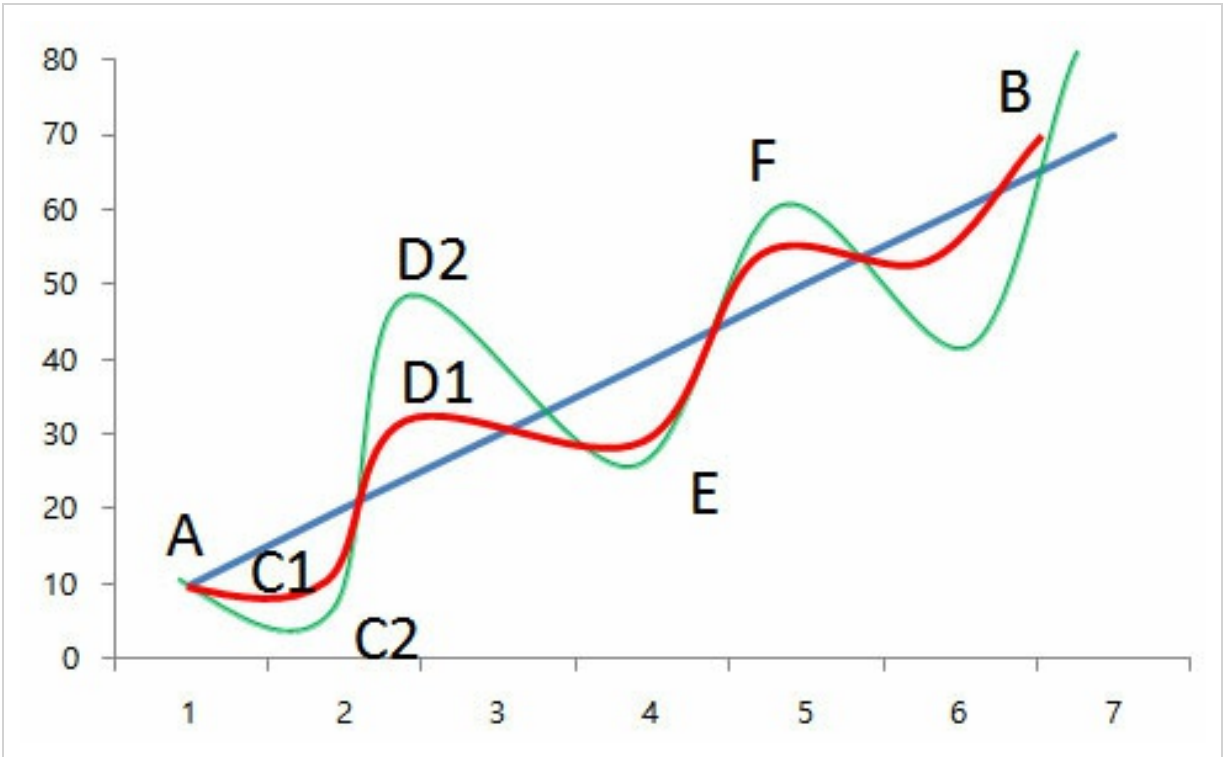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장의 장기·중기 흐름과 변동성 확대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에 맞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장기 흐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장기 추세에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 흐름 속에서 사이클의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하죠. 이때 누구도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점 근처라고 보면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락기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어 정상적인 저점보다 과도하게 낮아진 저점이면 더 좋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 저점 부근이라면 매수를 합니다.

저점에서 가격이 방향을 틀고, 상승하게 되면 그때까지 투자를 합니다. 장기 추세선까지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장기 추세선을 넘어서면 매수를 중단하고, 가격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가진 자산을 보유하면서 매도의 시기를 저울질할 때입니다. 가격이 상승 영역에서 적정 상승폭까지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때의 가격은 건강한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상승을 목격한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형성하고, 작은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시장 내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매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중기·단기 가격 흐름의 통합과 매수/매도 판단



출처: 필자 작성

위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산 가격이 A에서 B까지 오르는 과정이고, C1까지는 경기 변동에 의한 중기 하락 흐름입니다. 그리고, C2는 시장이 얼어 붙고 유동성이 떨어진 투자자들의 투매로 인한 공포 매도 기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C1부터 매수에 진입합니다. C2에서 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맞추기 어렵습니다. 바닥인 C2를 찍고, 가격이 오르면 녹색 선이 파란색 선까지 오를 때까지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파란색 선을 넘어서면 매수를 자제하고 지켜봅니다. D1부터 매도 시작인데, C2에서 D1까지의 가격 상승을 목격한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이 급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D2까지 오릅니다. 고점인 D2를 찍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자산 가격은 이러한 중기 흐름을 반복하면서 A에서 B까지 오르는 장기 추세를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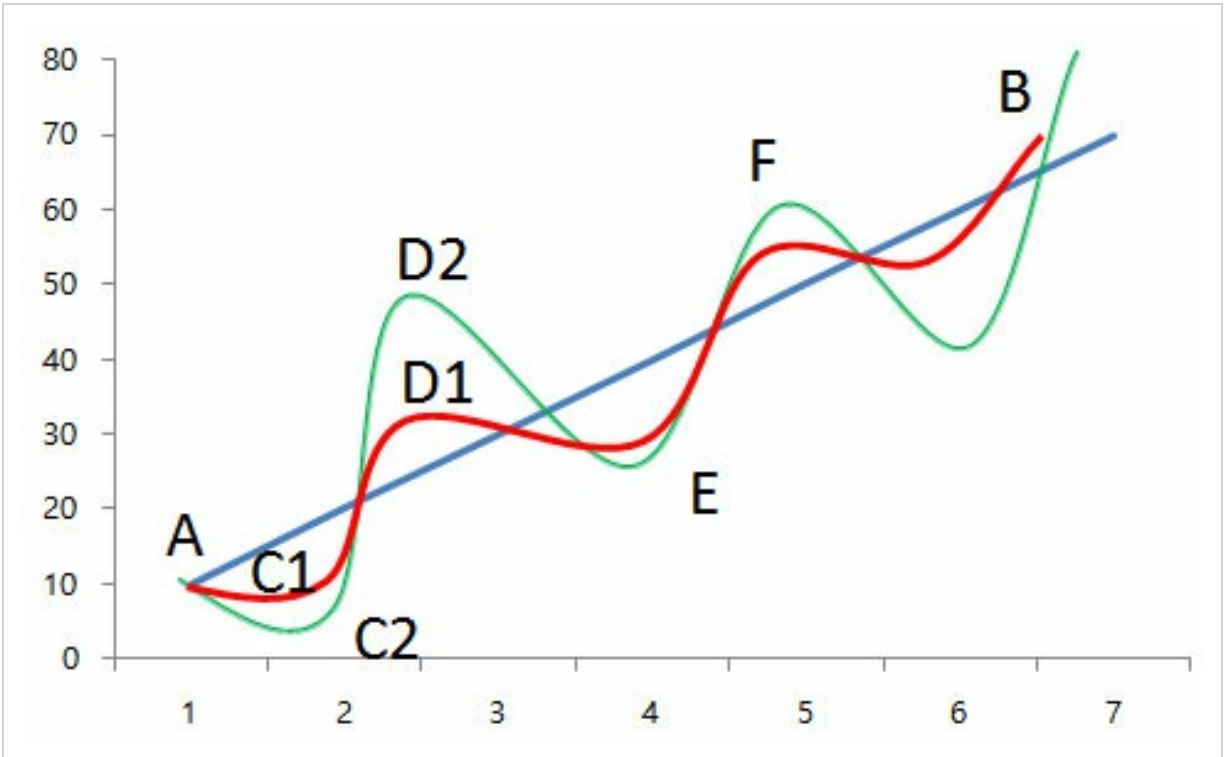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매 타이밍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완전 저점과 완전 고점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그때 매수/매도한 사람은 운이 아주 좋거나, 실력이 있더라도 매번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C1에서 샀는데, C2까지 떨어지면 기다리면 됩니다. 중기 흐름이나 장기 추세가 확실하면 C1에서 C2로의 가격 하락은 소음noise에 불과합니다. C1에서 C2로의 가격 하락을 단기 흐름에서 보면 신호이겠지만, 중기 혹은 장기 흐름에서 보면 소음일 뿐입니다.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 신호와 소음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D1에서 매도했는데, D2까지 상승했다면 무시하십시오. 매도한 후에도 추가 상승이 있다면 이건 단기 성향 투자자들의 몫이거나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일시적 상승일 수 있습니다(설령 이 말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물론, 전 이 말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흐름 속에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투자 기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먼저 보고, 중기 흐름을 고려해서 투자하고자 하면 금리나 규제 등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강조하자면, 이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항상 마주치게 됩니다. 이를 상수로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정치적 이슈가 나왔다고 당황하고 금리 상승이라고 힘들어하면, 그건 단기 투자 수익을 원한 것이고 그것은 위험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장기·중기·단기 가격 흐름의 통합과 매수/매도 판단



출처: 필자 작성

위의 그래프를 다시 보면, A에서 B까지의 투자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중간에 C, D, E, F 지점의 가격 변동은 나에게 전혀 위험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 가격 변동일 뿐이고, 나의 투자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D지점에서 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B지점까지 있으면 됩니다. 수익률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역시 중간의 가격 변동 위험이 상관없게 됩니다. 물론, D지점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C와 D 사이에서 투자해서 B까지 버티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가격 흐름인 D1에서 중단한다면 D2에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짧게 보면 가격 변동성 위험은 어쩔 수 없고, 위험/수익의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을 길게 보면 중간 가격 변동은 위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기로 투자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짧게 짧게 먹고 나오면서 투자금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기 가격 변동을 계속 맞출 수 있나요? 매 가격 흐름을 맞추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 수 있으신가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중기에 자연스러운 가격 변동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시겠죠? 중기 가격 변동은 단기 변동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시장에 오래 계속 있으시면서, 경기와 수요-공급 등을 계속 관찰하시면 정확한 저점·고점을 맞추지는 못해도 가격 변곡점 근처에서 행동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보면, 중간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격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수로 보지 말고, 상수로 보고 투자하면 위험에 조심하게 됩니다. 과도함은 남의 몫으로 넘기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만 취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자금에서 얼마를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써야 하는 자금을 빼고, 철저히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으로 한정하는 게 좋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돈 별 시간은 많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르는 것 못 샀다고 안타까워 마시고, 못 팔았다고도 슬퍼 마시고, 큰 흐름에서 편안하게 대응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가격 흐름에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격 흐름 속에서 투자자가 할 일

- 1단계. 가치가 상승하는 사례를 발굴한다.
- 2단계. 가격 변동성을 인내하며 가격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때까지 기다린다.
- 3단계. 마켓 타이밍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 4단계.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
- 5단계. 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